

포스코인터 '기업시민' 이념 실천 강소 車 부품사에 10억 자금 지원

수은과 한미ADM에 성장 자금
수출·물류 인프라 구축 등 사용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국내 강소 부품사를 지원하며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수출입은행과 협력하여 자동차 경량화용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강소 부품사 한미ADM에 10억원의 수출성장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자금 지원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5월, 수출입은행, 서울보증보험과 강소 부품사의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맺은 '신(新) 금융지원 상생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의 성과로, 한미ADM의 해외 수출 및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수한 기술력에 비해 고객사 대응과 파이낸싱, 현지화 등에 어려움을 겪던 한미ADM과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과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가 지난 5월 강소 부품사 금융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체결한 '신금융지원 상생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력하여 고객사의 수요 및 프로세스 정보 제공, JIT(적시제공) 납품 등의 수출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강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는 GM, FCA 등 세계적 완성차 제조사의 1차 부품사로 공급되는 한미ADM의 수출 물량 전망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양사 간 협력을 시작한 2010년 이후 2000억 원 이상의 누적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국내

강소 부품사와 단순히 생산, 판매의 협력을 넘어 현지 바이어의 요구를 함께 대응하고 판매망을 강화하며 동반성장의 '기업시민' 이념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들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430여 종 패턴 '보닥' DIY 인테리어 선도

현대L&C

오리진 우드로 라인업 업그레이드
실제 우드 가까운 질감·패턴 표현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의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가 인테리어 필름 '보닥'을 통해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셀프 인테리어' 수요가 늘면서 관련 매출도 상승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 구성원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공간을 직접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DIY 및 시공이 간편한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L&C의 인테리어 필름 '보닥'은 필름 뒷면에 특수점착제가 처리되어 있어 벽이나 몰딩, 문, 가구 등에 부착할 수 있는 표면 마감재다. DIY용 제품은 아니지만 시공이 어렵지 않아 셀프 인테리어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현대L&C의 보닥 오리진우드 적용 모습.

있다. 430여 종의 다양한 패턴을 보유한 '보닥'은 상반기 프리미엄 우드 패턴군인 '오리진 우드'를 출시, 패턴 라인업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오리진 우드' 패턴군은 유·무광이 혼재된 특수코팅 처리 및 딥엠포스 적용으로 보다 사실적인 목질을 재현했다. 지난해 리얼 패브릭, UMI(UV 마

이크로 임프린팅) 등 다양한 신소재 패턴을 출시하면서도 슈퍼매트, 페인트 우드 등 주거공간을 겨냥한 단색 제품 확충에 무게를 두었다면 올해는 '지속 가능한 자연주의'라는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해 실제 우드에 가까운 질감을 표현한 고급 우드 패턴을 앞세워 상공간 및 고급 주거공간을 아우르는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점착면에 수성점착제를 적용해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인 'HB마크' 최우수 등급까지 획득했다. 업계 최초로 대한아토피협회의 '아토피 안심인증', 환경부 '실내'마크 획득,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기준에 준하는 방염 성능을 확보한 현대L&C '보닥'은 올해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인 'HB마크' 최우수 등급까지 획득함으로써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아차, 언택트시대 홈 보안 서비스 제공

프리미엄 홈 세이프티 케어

기아자동차가 언택트 시대에 홈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모션인 '프리미엄 홈 세이프티 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프리미엄 홈 세이프티 케어' 서비스는 프리미엄 차종인 K9, 스텔러, 모하비 3 차종 구매 고객 대상으로 ▲실시간 보안 및 다양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

하는 'ADT캡스 홈 도어가드' ▲1.0%의 초저금리 할부 혜택 제공하는 기아차의 프리미엄 프로모션이다.

10월 중 'K9', '스텔러', '모하비' 차량을 구매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ADT캡스 홈 도어가드 서비스 혜택인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 '현관 앞 배회자 감지 및 알림' '양방향 대화 가능' '24시간 출동서비스' '도난 및 파손 보상' '화재 1억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ADT캡스 홈 도어가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총 36개월의 할부 기간 동안 최저 1.0%의 할부 금리가 적용되어 고객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고려, 비대면 배송으로 인한 물품의 도난 우려, 부모의 부재 시 집안에 많은 시간 머무르는 자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맞춤형 토탈 보안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모비스, 미래 인포테인먼트 공략 박차

AR HUD 선두 업체에 300억 투자
5년내 자율주행 최적모델 공동개발

현대모비스가 미래자동차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현대모비스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핵심부품인 AR HUD(증강현실 헤드업디스플레이) 글로벌 선두업체인 영국 엔비직스에 2500만달러(약 300억원)를 투자한다고 7일 밝혔다. AR HUD는 차량주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방 도로와 매칭해 전면 유리창에 투영해주는 차세대 안전 편의 장치이다.

그 동안 자율주행과 전동화에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해온 현대모비스가 미래차 성장동력의 또 다른 한 축인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선제적인 투자를 실시한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코로나19 등 불투명한 글로벌 경영환경 가운데도 최근 3년간 자율주행과 전동화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실시했다. 자율주행(벨로다인, 모셔널과의 협력), 전동화(충주2, 울산, 평택공장 건설)의 미래차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커넥티비티 등 인포테인먼트 부문에서도 차세대 먹거리를 적극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직스는 지난 2010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제이미슨 크리스

마스 박사가 모교의 원천기술을 활용해 설립한 디지털 홀로그래프 광학기술 스타트업으로, 현재 글로벌 AR HUD 선두업체로 평가받는다. 홀로그래프 기반 HUD의 양산 경험이 있는 업체는 엔비직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R HUD는 크게 기하광학 방식과 홀로그래프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기하광학은 현재 양산 중인 HUD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를 AR HUD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 전면에서 20L 이상의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차량 크기가 큰 럭셔리 세단이나 전기차 등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반면 디지털 홀로그래프는 별도의 광학장치 없이도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가장 진화한 방식이다.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차세대 AR HUD 구현에 최적화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엔비직스는 디지털 홀로그래프 기술을 바탕으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원천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디지털 홀로그래프 기술의 단점인 속도 지연과 화질 저하 문제를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 해결했다.

현대모비스는 엔비직스와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AR HUD를 공동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항공, 코로나 백신 수송 준비 돌입

화물사업본부 내 전담 TF 구성
장비·시설 분석, 안전 등 준비

대한항공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백신을 전 세계로 완벽하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7일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함께 급증할 항공 운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화물사업본부 내에 백신 수송 업무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0억회분의 접종량이 필요하며, 백신 품질유지 및 긴급성으로 인해 항공 수송이 필요해 백신 개발 후 항공 운송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전망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전 세계에 필요한 백신 수송을 위해서는 8000여 대의 보잉747 화물기가 필요할 것으로 최근 예측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화물영업 및 특수 화물 운송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백신 종류에 따른 보관 온도 확인과 운송시 필요한 장비·시설 분석 및 확보 ▲백신 출발·도착·경유 지점의 필요 시설 점검 및 전용 공간 확대 ▲비정상 상황 대비 안전·보안 절차 재검토 및 모니터링 강화 ▲직원 교육 등 백신의 수송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

백신은 2°C에서 8°C 사이의 온도에서 운송 및 보관 돼야 하며, 종류에 따라서는 -70°C 이하의 온도 유지가 필요하다. 백신 운송은 항공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대한



온도조절이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가 대한항공 화물기에 탑재되고 있는 모습.

항공은 의약품 및 신선식품류의 수송 비중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총 수송 화물 물량의 10%를 의약품 및 신선식품류가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운송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해 6월 IATA로부터 의약품 운송을 위한 자격인 'CEIV 파마'를 취득한 바 있다. 이는 의약품 항공 화물 운송업체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국제표준 인증으로 세계적인 운송 전문가들이 의약품 운송 절차, 보관 시설, 장비 및 규정 등 280여 개 항목을 까다롭게 평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자사 화물터미널에 약 100톤의 온도조절 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1292㎡ 규모의 냉장·냉동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백신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내년 중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1872㎡ 규모의 신선화물 보관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